



관조스님의 사진집 '생, 열 그리고 윤회'에서.

# “부처님 가르침 렌즈 포교”

## 불교사진연 4·5월 전시준비 '한창' 매일 산사 찾아 법회·촬영

“한컷의 사진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는 신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렌즈로 담아 표현하는 불자사진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운, 이하 한불사회)'.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천 홍보전시실, 오는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사진전을 갖는 이들은 작품전 준비로 여념이 없다. 부천 홍보전시실에서의 사진전에는 회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불교소재 작품 30여점이, 조계사 전시는 연동행사의 각종 모습을 담은 불교사진전으로 꾸며진다.

최근 사진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진의 소재로 불교가 각광을 받고 있다. 불교전통의 식인 영산재나 연등제, 대비의식 등에는 사진작가들로 인한 이해를 이루어 행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이고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도 입상작품의 상당 부분을 불교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불교사진이 선호되는 이유는 한국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은 불교에 서밖에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답 사찰 스

님 등 의형적인 모습의 불교뿐 아니라 내면사상의 표출까지 추구하는 한불사회는 불교를 구심점으로 하는 사진모임단체라는데 자부심을 갖고 불교사진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전파를 모색하고 있다. 한불사회에는 전문 사진작가는 물론 사진에 취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산불교방승 사진회인 '찰나회'가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한불사회는 매일 한차례씩 산사에서 정기법회 및 촬영시간을 갖는다. 지난 3월 22~23일에는 고탈 선운사에서 정기촬영을 실시했다.

“겉만 보는 피상적인 사진을 거부합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회는 독특한 내면의 눈에서 나온 제대로 된 불교사진을 추구합니다”고 강조하는 회장 이병운씨는 “현대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사진을 통한 포교의 그 효과가 앞으로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한불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사진연합회는 앞으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전국 지방결성을 통해 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사진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의 일환으로 불우노인들 영정사진 찍어주기 운동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 사찰주변 풍경 사진집 발간

### 관조스님 9일부터 전시회도

승가 고유의 모습을 수행자 특유의 시각으로 사진에 담은 작업을 벌여온 관조스님(법어사)이 여덟번째 사진집을 내고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사진집의 제목은 '생(生)·열(滅) 그리고 윤회(輪廻)'. 사찰 주변의 이름 모를 풀들과 꽃들, 나무, 바위 등 풍광이 스님만의 독특한 시각에 잡혔다. 늘 보던 풀과 나무와 꽃들이 새로우면서도 생동감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며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에서도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두 자기나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있지요.” 이번 사진집에는 관조스님이 지난 2년간 여러 산사를 다니며 렌즈에 담은 풍경 중 가려뽑은 62컷의 작품이 실렸다. 이 중에서 30여점을 선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종로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3번의 해외전시 등 수차례의 전시와 (승가) <열반> <대웅전> <꽃> 등 특유의 개성있는 사진집을 낸 바 있는 관조스님은 앞으로도 '바위' '생로병사' 등을 주제로 한 사진집 출간을 구상하고 있다. <속>

## 전통 불교의식이다 사진작가 '복적'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있다. 현재 회원은 승가 재가 합쳐 30여명.

사진으로 유명한 관조스님과 안장현씨가 고문을 맡고 있으며 정우 선암 동욱 용수 기봉 범일 허주 석공 지한 지암 월중 한복 부영 스님 등 사진에 일가견이 있는 스님들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 석왕사의 사진동호회인 '심상'과 부

## “화보로 보는 흑석사 복장직물”

### 김영숙씨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펴내

“5백여년전 옷감 문양이 현대에 못지않게 세련됐다.”

최근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11점의 고려시대 옷이 출현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조선전기 불복장(佛復藏)직물을 조사 연구해 화보로 엮은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미술문화) 책자를 본 사람들의 이구동성이다.

동양복식연구원장 김영숙씨(문화재 전문위원)가 펴낸 이 책은 지난 1992년 경북 영풍 흑석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출현

한 46점의 직물류를 종류, 조직 상태, 문양의 특징과 그 역사적 배경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불상복장직물인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의 몸안에 넣는 물건을 말하는데 주로 사리, 경전이나 발원문 등을 넣고 옷, 직물, 오색실, 오목 등이 들어간다.

흑석사 아미타불상에서는 효령대군이 관선하여 세조를 비롯한 왕실에서 시주하였다는 관선문을 적은 석견을 포함, 정 의공주와 그의 부군 연창왕의 안맹담 두사람의 넓이만 적힌 석

견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복장물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불복장직물의 이해>에는 울림타 사진으로 조선초기 48가지 각종 직물의 전통문양과 색깔을 상세히 보여준다. 특히 종조직 문지 주자직 등 직물들의 다양한 옷감조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해 실어 주홍색 청색 두루색 타색 이형색 등 직물염색의 배어난 기법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양은 운보문(雲寶紋) 만자문(卍字紋) 연화문 당초문 국화문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 문양이 2종 또는 3종을 복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 현대적인 기법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흑석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나온 천승2년(1458)의 명기가 있는 직물을 비롯한 직물류는 국보 282호로 지정되어 있다.

## 문화소식

### 불국사 무설전 김교각스님展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 전시회가 서울 대구에 이어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개최된다. 오는 5일부터 7월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교각스님 관련 유물 1백여점과 구화산 역사·문물 관련사진 및 유적 탁본, 사진자료와 김교각스님의 일대기가 소개된다. (0561)745-3088

### 김백봉씨 무용 60년 무대

'보살춤'으로 유명한 원로 무용가 김백봉씨(71)가 오는 8일 오후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60년 무용인생을 총 결산하는

### '아 김백봉!'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김씨가 안무한 대표작 '화관무'와 '부채춤' '보살춤' 등 7편의 작품이 선보이며 2백여 제자들과 두달 안병주·병현씨도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엔 공연되는 '보살춤'은 김백봉씨의 스승인 최승희의 작품.

### 선주선씨 10년만에 서예전

행·초서에서 능통한 선주선교수(44·원광대 미대 서예과)가 10년만에 서울 개인전을 열고있다. 2일부터 8일까지 운현궁미술관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최근 서예작품 50점이 발표됐다.



## 불심시심 (82)

### 달 아래 학의 울음 듣다

蒼鶴將雛自作群 새끼 달린 푸른 학 스스로 무리지어 (창학장추자작군)  
石門斜日弄晴雲 돌 문 지는 해에 비 갠 구름 희롱하다 (석문사일봉청운)  
琴聲鶴唳相清切 거문고 소리 학의 울음 서로 맑게 어울려 (금성학려상청결)  
翁在丹崖月下閒 翁在丹崖月下閒 신선 언덕 늙은이 달 아래서 듣다 (옹재단애월하문)

지난 호에 이어 송계대사의 시이다. 석문에 깃들인 학을 읊은 시이다. 그저 단순하게 학을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새끼와 어울리게 하고는 아들이 어울려 울고 있는 자연의 기락을 담고 있다. 왜 하필 푸른 학인가. 소나무와 어울린 학이기에 한 말이다. 푸른 숲과 흰 학의 어울림을 한 단어로 묶은 것이다. 창송백학(蒼松白鶴) 그 대문이다. 여기에 새끼를 거느렸다 하였으니, 많은 수의 한 무리를 실감있게 보여주는 배려라 하겠다.

이러한 공간에서 석양이라는 시간을 배합하여 뜻 학의 울음이 더욱 울리도록 하였다. 구름도 비 갠 뒤의 구름이라 하였으니, 비 갠 뒤의 석양의 해맑음을 연상할 수가 있다.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학이 희롱하고 있다. 이 희롱한다는 말이 학의 자유로움을 더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여기에 거문고가 함께하고 있다. 이 때의 거문고는 어떤 거문고일까. 아마도 솔바람의 줄 없는 거문고일 것이다. 그야말로 무현금이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청월이라는 맑음의 극치적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거문고 소리와 학의 울음이 산사의 저녁 풍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산사의 전부이다. 극히 단순로운 듯하지만, 이 자체로서 온 자연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 하겠다. 산사의 저녁 풍경에 이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랴.

이러한 환경의 주인공으로 '늙은이'의 한 단어가 적절하게 자리잡았다. 그 자리에 늙은이로 대표되는 신선의 거처로 표현하였다. 달 아래에서 듣는 다 하여 학의 울음과 스님의 거리를 느끼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리의 느낌보다는 서로의 은근한 정감의 거리인 양 더 다정하다. 오히려 정감으로 더 좁혀져 있다 하겠다.

이렇듯 대사는 한시 대상의 물체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면서도 거리가 없음이 특색이다.

대사의 시에서, 스님의 신분을 느낄 수 있는 시는 그리 많지 않다. 거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연을 여실하게 읊으면서 그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자연을 철저하게 사람으로 유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으로서의 나, 또는 작가가 없는 자연의 열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절대적 자아외식이 아닐까.

이중환 (동국대 교수)

## 문화재 관련 책 잇달아 출간

무형문화재 관련 서적이 잇달아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체육부와 함께 <문화재대관(중요무형문화재, 중요보존)>을 펴낸 데 이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방법론>을 발간했다.

<문화재대관>은 83년 발간된 이후의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한 중보관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별 해설 및 주요 실연장면을 사진으로 담았다. 영문, 독일, 중국, 일본, 모로코 등 13개국의 무형문화재 보존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존...>은 지난 해 10월 개최된 '무형문화재 보호방법론 개발 국제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엮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독일, 모로코 등 13개국의 무형문화재 보존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단장 등 인가문화재 4명 지정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생을 성보문화재보수와 사찰단체에 협소한 종점석씨(58)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장직 기능보유자로 지정하는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4명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유자는 제42호 악기장 현악기 부문에 고흥관씨(46), 제74호 대목장에 고택영씨(83), 제77호 유기장에 한상춘씨(49) 등이다. 이로써 중요무형문화재는 103종목에 184명의 보유자와 51개 단체로 늘어났다.

## 함께 일할 식구를 모집합니다

1. 조 건 : 무자본, 무담보, 노력투자
2. 자 격 :
  - 돈과 일이 필요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 경영경험과 능력 소지하신 분 (남녀 차별없음)
  - 불사봉헌에 제한 마련이 어려운 보살님, 거사님 환영
3. 모집요령 :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면접 후 결정
4. 모집일시 : 1997년 4월 3일 10시까지 내사(전화 상담 가능)
5. 사업설명장소 : 본사 사업부  
연락처: 02)774-6705  
02)757-6705

※ 명분있게 돈 벌어서 불사봉헌하시고 큰 덕 베푸셔서 보살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청호물산 주식회사 사업부  
본부장 홍정일(법명 : 智光) 합장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 대구여래한방

##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동아신 본들에게 잘아주고 덜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담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재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인세제해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 하기보다는 한가지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전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표범연화경 대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숭배할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여 사람이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해오셨으며,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있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에 집필된 불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또 하나의 영험력 : 집안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을 100% 차단시킵니다. <수맥없는 전문가들의 실제 테스트결과 입증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스님들께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고통화복을 80%이상 적정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천축연축 일체지영가 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렇듯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탑다라니는 포교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굳게하는데 필요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면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게 하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명과 수자영가인 낙담, 지면유신인 사산아득의 원혼들을 불명들 지어 화를 면치시켜주므로 확실하게 친도시켜 주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리므로서 더 소나기와 불사하는 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력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살자나 관자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지고되거나 집안불리는 분.
9. 고사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을 꼭 받아보십시오. 편익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